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치워라.”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은총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돌처럼 굳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불신을 치우고 자녀다운 신뢰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사순 시기의 기도와 선행으로 우리 마음의 돌을 치우는 노력을 해보시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7년 4월 2일 사순 제 5 주일 복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요한 복음 11,1-45

그때에 1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1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그제야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15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16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께서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18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30 예수님께서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32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신부 이야기

한 주간 잘 시작했지요? 지난 주일 영어미사에 함께 한 하모니, 트락 회원들에게 진심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정말 인상 깊은 미사였고 작은 감동이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도 감사. 작은 숫자이지만 영어권 형제자매들이 소식 듣고 함께 해줘 기뻐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그 반을 해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은 영어권 신자들이 공동체로 돌아오고 우리와 함께 활기차고 기쁜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단 한명의 신자만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 월말 영어 미사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성서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삼일까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시기도 신앙인답게 멋지게 보내시고 아직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번도 못했다면 부활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도 3월 다섯째주 공지입니다.

오늘(3/29) 생일을 맞이한 금채은 소피아 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

<지난 행사>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3/23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있는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에 봉사해주신 장익, 전진영 형제/자매님 감사합니다. 다음 봉사는 4/27이니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보 나눔 봉사 - 3/26

교중미사 전 주보나눔 봉사에 수고한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 감사합니다.

연도 - 3/26

주일 교중 미사 후 박노승 프란시스코 형제님(뜨락회 허소연 프란체스카, 허혜연 데레사 자매 외조부님)의 연도에 참여한 권창모, 안영은, 차아름, 전진영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편안히 하느님 곁으로 가실 수 있도록 다시한번 기도 드립니다.

영어미사 - 3/26 주일

지난 주일 (3/26) 우리 공동체의 첫 영어미사가 있었습니다. 뜨락회와 하모니가 주축이 되어 준비한 본 영어미사에 약 35명의 신자들이 참석해 첫 미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4시 미사에 참례하며 도움을 준 하모니 류은정, 최보나, 전재민, 금채은, 장익, 김현경, 윤주현, 안영은, 권창모, 김정호, 전진영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뜨락회 전영진, 이승재, 김강훈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미사 후 다과 시간에 영어권 신자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영어미사를 통한 만남을 기약 했습니다. 영어미사의 활성화로 영어권 교우들과 주님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영어미사는 4월 마지막 주일, 4/29일 입니다.

청년회 소개 포스터(영어, 한글)를 첨부합니다

성지가지 작업 봉사 - 4/1 토

다가오는 토요일(4/1) 오전 10시에 성당에서 성지가지를 자르고 다듬는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봉사할 4명의 형제님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형제님들을 부탁 하셨지만, 자매님들도 가능할 듯 합니다~ 연락 주세요.) **부활절 전 주일(4/9)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 공동체 신자들도 4/9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날 축복받은 성지가지를 들고 (교중 미사전) 성당 주위를 행렬하게 됩니다. 본 행렬에 필요한 성지가지 작업, 부활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주보 나눔 봉사 - 4/2

매 주일 교중미사 전에 주보나눔 봉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가능한 날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동안은 오전 10:10부터, 부활절 부터는 오전 10:30부터 시작합니다.

4/2일 봉사 - 전진영 베로니카

사순 제5주일 십자가의 길 - 4/2, 청년회 봉사

4/2일 주일 교중 미사 전 십자가의 길을 하모니, 트락회가 봉사합니다. 주송자 최보나 가브리엘라, 십자가 복사 안해준 야고보, 초복사 류은정 골롬바, 전영진 알베르도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은 늦어도 오전 10:10까지 성당에 도착해 준비하고, 10:20에는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부님께서 사순시기 동안 적어도 한번은 십자가의 길 기도에 참여하며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새기며 동참하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4/2일은 청년회가 십자가의 길을 봉사하느니만큼 많은 하모니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 바자회 - 4/16

부활맞이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가 4/16일 부활 대축일 미사후에 있습니다. 예년 우리 청년회는 음료 판매를 주로 했었고, 작년에는 골뱅이 무침을 판매했었죠. 음식/주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디저트 판매 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 바자회때는 어떤 준비를 할지 각자 생각해 보고, 다음(4/2) 회합때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시기 다짐 실천

사순시기 동안 본인의 다짐을 매일 기억하며 **영신수련과 애덕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실천사항, 경험, 느낌을 서로 나누어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 다짐으로 영적도서를 접하는 분들, 성물방에서 모든 성물과 도서를 20% 할인 판매한다니 방문해 보세요~

성물 수거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성물 (목주, 십자가상, 성모상, 성화, 등)**을 성당 입구에서 수거합니다. 성물은 축복을 받은 거룩한 물건이므로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처분시엔 땅에 묻거나 성당에 가져와 성물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거된 성물은 오کل랜드 교구에 보내져 관례대로 처분될 것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금채은 소피아 - 3/29

새신자 소개 - 환영합니다! 😊

안영은 마르따

앞으로 주님 안에서 기쁜 신앙생활 함께해요!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3월은 특히, 우리 청년회 멤버였던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부착: 성당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표를 분실했거나 여분이 필요한 분들, 알려주세요.

사순절 전례 안내 (3/1-4/15)

- 교황님의 "사순시기 양심성찰" <http://www.oakcc.org/node/2849>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 그리고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적어도 한번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 마지막 시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성당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성화와 기도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을 참고하세요. [바오로딸콘텐츠]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https://www.youtube.com/watch?v=g2eM_-jjxP4

- 부활판공성사

매 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가 있으며,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여 고해실 안 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사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다"로 합니다.

- 특강

4/2 주일 교중미사 중 (김종광 요한 트라이벨리 신부님)

4/9 주일 점심/대청소 후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 주제: "나는 ____ 이다 2"

- 성경 쓰기

사순시기동안 신약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야고보 서간을 쓰고 필사한 노트는 부활 성야 미사(4/15)때 봉헌합니다. 사순시기동안 참회와 기도, 나눔과 자선, 그리고 성경쓰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모니: harmony 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

2 attachments — [Download all attachments](#) [View all images](#)

YOUNG ADULTS' GROUPS



english poster_11x17.jpg
6218K [View](#) [Download](#)

TSUBAKI	HARVEST
WHO: ALL SAINTS' CH. WHERE: 10221 DAVIS ST/7TH AVE WHEN: 100A-12P CONTACT: GIBBY DUN GIBBYDUN@YAHOO.COM 415-634-7177	WHO: ALL SAINTS' CH. & UC OF WHERE: 10221 DAVIS ST/7TH AVE WHEN: 100A-12P CONTACT: WENDY DUN WENDYDUN@YAHOO.COM 415-634-7177

청년 모임 안내



본학점	영문본
대상: 20대 미혼남녀 모임: 매월 첫째 주일 오후 4시 후 장소: 교구청 2층 202호실 문의: 목장 운영팀 김태민호 contact@youth.org 415-630-7177	대상: 30대 이상 미혼남녀 모임: 매 주일 오후 4시 후 장소: 교구청 202호실 문의: 목장 운영팀 제로시카 harmony catholic@gmail.com 510-229-2464